

김연아 '올해의 스포츠우먼'

여성스포츠재단, 아시아인 최초 선정

미국적 아닌 수상자로는 역대 세번째 연아 "스포츠가 여성 삶에 원동력 되길"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20)가 아시아인으로 사상 처음으로 여성스포츠재단이 제정한 '올해의 스포츠우먼'에 뽑혔다.

김연아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월드 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았다.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는 시상식에서 김연아가 "무척 영광스럽다. 그동안 많은 힘이 되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상을 통해 보다 많은 여자 어린이들이 피겨스케이팅에 입문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직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여자 어린이들이 스포츠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통해 보다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스포츠우먼'은 1980년 제정됐고 가장 권위 있는 여성 스포츠 상으로 꼽힌다. 이 상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스포츠재단은 1974년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 빌리진 킹이 설립했다. 올해의 스포츠우먼은 1992년까지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눠 각각 시상하다 이후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수상자를 뽑아왔다.

김연아는 지난해 처음 후보가 됐지만 상은 미국 기계체조 선수 코르티 쿠페츠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올해 다시 모두 미국 국적인 불림 켈리 클락, 휠체어 농구 알라나 니콜스, 육상 사나 리처즈, 요트 안나 투니클리프 등과 경쟁해 수상자가 됐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첫 수상이며 미국 국적이 아닌 수상자로는 골프여자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2004년), 역시 골프스타 로레아 오초아(멕시코·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세계선수권에서 5차례 정상에 오른 미셸 관(1998년),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라 휴즈(2002년)가 이 상을 수상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13일(한국시간) 아시아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우먼' 수상자로 결정된 김연아가 미국 뉴욕 월드 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상무, K리그 잔류 딜레마

AFC "챔스리그 티켓 줄이겠다" 압박 법안화·연구이전 이리저도 저러지도

프로축구연맹이 군 팀 광주 상무로 인해 딜레마에 빠져있다.

아시아 최고 리그로 발돋움하려는 K리그이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특단 나면 상무에 대해 골치 많은 시선을 보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 약영향을 줄 수 있어 고민이 깊다.

2003년부터 리그에 참여 중인 상무에 대해 AFC는 ▲법안화 ▲행정 및 재정 등을 이유로 K리그에 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2008년부터 풀어진 문제다.

당시 프로연맹은 '남북 분단'이란 특수한 국내 사정을 이유로 AFC에 각 클럽의 법안화 의무를 2년간 미

뤄줄 것을 요청했고, 올 연말 유예만료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화두에 오른 것이다. 프로연맹은 다시 2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나 AFC는 계속 상무를 남길 경우, K리그에 할당된 4장의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실제로 AFC는 특수 임무 부서인 스페셜 미션(Special Mission) 팀을 구성, 최근 싱가포르 리그의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유는 타 국적 선수들로 구성된 클럽들이 리그에 참여하고 있어 진정한 싱가포르 축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페셜 미션 팀의 내년 1월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프로연맹은 챔

스리그 출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상무의 K리그 참여를 유지할 계획이나 문제는 또 있다.

상무가 광주를 떠나 새 연고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프로연맹은 상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에 프로팀 창단을 2년 내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지자체들은 광주가 시민구단 창단까지 7년이나 소요된 것을 들어 꺼리고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들은 "손해를 감수해도 특수한 현실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그저 답답하다"고 격정하고 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학원축구, 인권 사각지대 부터 점검하라"

김동국 사커에세이

학생인권조례에 바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아직은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소위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경우 앞으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체벌이 금지되고 휴대폰 소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 거의 모든 규제에 빗장이 풀렸다.

고교생 아이들을 둔 학부모와 같은 학부모 입장에선 사실 복잡한 심경이다. 그건 선생님의 회초리에 맞고 자라는 세대이면서도 그 해악 보다는 어느 정도의 체벌이나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우리 때와 같은 무지막지만 체벌이 있었느냐는 믿음도 있다.

지금의 40~50대 학부모들은 기억할 것이다.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십대씩 얻어맞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순간들을. 운동부 학생들의 경우 체벌 수단은 대걸레 자루가 아니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허키스틱 같은 무시무시한 것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허키스틱은 맞으면 '살점이 된다'고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영표 역시 비슷한 얘기를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올림픽대표로 발탁돼 한창 주가가 오르던 시절, 타키리그서 이적제 의가 왔고, 고민 후에 그 제의를 거

부한 뒤 감독으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시궁창에서 뒹굴며 발로 얼굴을 짓이기는 일까지 당했다는데 그 이유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닌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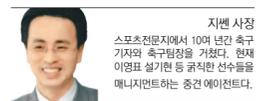
당장 복장 자율화가 이뤄지면 가난한 아이들은 의복에서 가난이 묻어날까봐 고민일테고, 우리 아이처럼 교복이 편하다는 축도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 수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도 큰 고민이란다. 학교 질서성을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교원단체의 지적도 충분히 공감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너무 진보적이라는 걱정은 있지만 한편으로 학원축구구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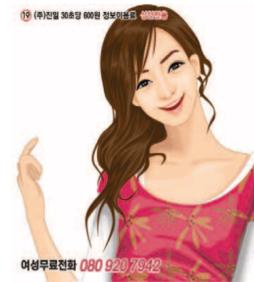
조례가 공포된 비슷한 시기에 초등학교 축구선수가 코치에게 맞아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경우는 학생이 사망했기에 심각성이 부각됐을 뿐 아직도 학원축구는 폭력이 만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축구를 한창 즐겨야 할 초등학교 아이들이 경기로 진 뒤 운동장 구석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경기 도중 선수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는 외국인 친구를 대하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던 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급한 공포보다는 학원축구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든다.



자본 시장 스포츠전문기자 10여 년간 축구 기자와 축구평론을 거쳐, 현재 이영표 활기찬 등 주축한 선수들을 매니지먼트는 중견 에이전트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랫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는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10년을 한결같이 060 600 5858

제 070514-중-657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인증필

남성 확대술

<수술없이 주사요법으로도 확대가능>

※ 시술후 일상생활 가능, 통원치료 불필요 ※

조루증 안전성과 후유증 걱정적은 음경배부 신경차단술로 치료가능합니다. (수술시간 약 15분, 저비용)

왜소증 남성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음경확대술

- 미세자가세포이식술 ● 길이연장
- 귀두확대 ● 보형물 삽입
- 대체진피이식 ● 음경 재수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보물을 황물로 만들지 말고 검증된 시술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원하셔서 상담하세요!! 당신의 파트너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을 갖도록 해 줍니다.

1644-7553 / (02)457-8212
치료 오심 빨리 일리

대일의원 남성클리닉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100713-중-18754호

킹남성의원

귀두/음경확대술 길이연장 조루수술
바세린제거 포경/정관수술 발기부전수술

조루·발기부전 걱정마시고 상담 하십시오!!

※ 24시 상담 ※ 합리적 비용

일산점 배석역 5번 출구 031-903-9199
안산점 중앙역 3번 출구 031-475-7275
창원점 창원역 앞 055-251-1801

네이버 킹남성의원 검색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100511-중-17979호

맨남성의원 남성수술

www.manclinic.co.kr

♂ 봉삼입술 ♂ 귀두/음경확대 ♂ 길이연장
♂ 조루수술 ♂ 바세린제거술 ♂ 음경만곡증

■ 상병중합검진 ■ 정관수술 ■ 레이저포경수술 ■ 발기부전수술

야간/공휴일 예약 수술 전 의료진 남성구성 조루 측정 가상술투입을 통한 수술전/후 비교 수술량 및 일련적인 일상생활 OK

합리적인 비용 **1577-7574**

청량리역 02-963-2182
청량리역 4번출구 맨비노기과의원
연신내역 02-387-3939
연신내역 4번출구 맨비노기과의원
신도림역 02-3439-7582
신도림역 1번출구 맨비노기과의원
천호역 02-477-9177
천호역 8번출구 브라운스톤 천호 맨남성의원
인 천 032-439-0007
인천미밀역 2번출구 신세계백화점 앞 맨남성의원
부천역 032-657-0009
부천역 1,3번 출구 맨비노기과의원
분당 031-707-7533
분당서현역 6번출구 맨비노기과의원
수원역 031-255-7582
수원역 2,3번 출구 맨남성의원
천안아산 041-563-0808
천안미밀역 사거리 맨남성의원
대전 042-484-7373
경리대역 10번출구 맨비노기과의원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서기 역삼역 사거리 맨비노기과의원
부산시연역 051-803-7533
서면역 1번출구 (우천우장 4층 맨비노기과의원)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맨남성의원

검정색에 맨남성의원 을 쳐주세요!

남성클리닉

음경 + 길이 + 귀두 + 조루 (포경 + 정관수술) 동시 복합 시술 가능

1. 미세 자가 세포 이식술(30분소요)
2. 대체진피(라이오플라트, 슈어덤, 퍼마콜)이식술
3. 수술 없이 주사 5분 남성확대술(써브큐, 펠레인)
4. 이물질 제거술(바세린, 파라린, 실리콘 및 기타)
5. 각종 보형물 시술(링, T자)

발기부전보형물
봉막대형, 굴곡형,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로 자연스러운 생활가능

★본인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 드립니다.
(일요일 공휴일 야간 예약수술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인증필 제080326-중-6826호

제니바 남성클리닉

친철상담 02) 462-9497~8
지하철 2, 7호선 건대역 6번출구 직진 30M